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아시아 우취인들이 함께하는 우표전시회 'PHILAKOREA 2009'가 열렸다. 필라코리아(PHILAKOREA)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우표전시회의 명칭으로 '우취, 우표류를 수집하여 우표작품을 만드는 취미활동'을 뜻하는 PHILATELY와 KOREA가 합쳐진 것이다. 아시아 국제우표전시는 아시아 32개국의 우취인이 제작, 소장한 우표작품들을 아시아우취연맹(FIAP)과 조직위의 규정에 의거 전시, 심의하는 대회로 올해로 24회를 맞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한국 근대우편제도 시행 100주년 기념하여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1994년과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해 열린 바 있다.

매년 이맘 때면 열리는 우표전시회지만 올해는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게 각 나라별 부스가 마련되어 각국의 우표와 화폐 등을 구경하고 수집할 수 있는 유익한 전시였다. 특히 우취인들에게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협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역대 크리스마스 쉼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방학을 맞아 전시회를 찾은 학생들, 수집가들, 특히 다른 해와 달리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크리스마스 쉼을 샀던 기억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쉼,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쉼이 조금 생소했던 모양이다. 우표인 줄 알고 이것저것 묻다가 '크리스마스 쉼'이라는 설명에 무척 신기해하는 모습이였다. 과년도 쉼 전시 외에도 판매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협회는 2009년 10월에 발매될 2009년도 크리스마스 쉼 샘플을 행사장에서 공개했다. '김연아가 보내는 응원메시지'를 소재로 한 올해의 쉼에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높은 호응도를 지켜보면서 국민피겨요정 김연아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 †